

한미일 3국, 역내 평화·안보 증진 협력 모색키로

美 주재로 영국 런던서 개최
 새 대북정책 이행 의지 확인
 북핵협상 유인 방안도 논의
 한일 양자회담도 이어서 성사

김혜린 기자 2021-05-05 19:14:03 통일·외교·안보



주요 7개국(G7) 외교·개발장관회의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(맨 오른쪽)이 5일 오후(한국시간) 런던 시내 호텔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, 모테기 도시미쓰(茂木敏充)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다./연합뉴스

한미일 3국 외교 수장들이 5일(현지 시간) 영국 런던에서 열린 3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과 관련, “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”를 강화하기로 했다. 또 “역내 평화·안보·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”을 모색하기로 밝혔다. 이날 한미일외교장관회의 이후 첫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도 열렸다.

주요 7개국(G7) 외교·개발장관회의의 참석차 런던을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,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런던 시내의 한 호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새로운 대북 정책을 공유한 뒤 추진 과정에서 3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.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은 동맹국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골자다. 한미일외교장관회의는 미국의 대북 정책 이행과 관련해 동맹국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난해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 이후 1년 3개월 만에 열렸다.

나아가 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. 경색된 한일 관계로 정 장관이 지난 2월 취임 이후 3개월째 모테기 외무상과 단 한 번도 통화를 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행보로 첫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린 것이다. 교도통신은 전날 복수의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동이 미국 측 제안이었다고 보도했다.

한국과 일본은 이미 지난 3일 블링컨 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열고 새 대북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. 정 장관은 한미외교장관회담 직후 새 대북 정책에 대해 “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

2021. 5. 6.

한미일 3국, 역내 평화·안보 증진 협력 모색키로

영한다"고 밝혔다. 일본 외무성도 미일외교장관회담과 관련, "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"고 전했다.

/김혜린 기자 rin@sedaily.com

<저작권자 © 서울경제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